

# “특별규제 없는 동물용 의약품… 최소한의 독성평가 필요”

국내 반려동물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 추세지만, 동물용 헬스케어 시장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반려동물을 위한 치료제와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체계적인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메트로경제신문〉이 2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한 ‘2024 제약&바이오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 시장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잇달아 제시했다.

## 산업 성장세에 비해 법·제도 미흡 의약품 처방시 사람용 제품 대다수 헬스케어 기업들 시장 진입 한계

### ◆동물만을 위한 제도 마련 시급

동물의약품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부족한 규제에 있다.

현행 약사법 상 수의사는 필요시 모든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에 처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들이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의 85%는 동물용이 아닌 사람용 의약품이다.

승인을 받은 동물용 의약품 수가 적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가격이다. 생산 규모에 따른 생산 단가와 의료 보험 적용 등에 대한 문제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체용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형준 그라스메디 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반려동물의 맞춤형 의학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제약사들이 아직까지 이 시장에 적극



〈메트로경제신문〉이 23일 서울 중구 소재 페럼타워에서 주최한 ‘2024 제약&바이오포럼’에 청중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2024 제약·바이오포럼’에서 한 청중이 애니멀 프리 이니셔티브(AFI) 전시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적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이 한계를 정책적으로 풀어나가거나 반려동물 제약사 혹은 이런 기업들이 국내보다 큰 글로벌 시장으로 문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문제들로, 동물들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윤지 원장은 “동물들은 1kg도 안되는 환자부터 80kg이 넘는 환자까지 무게의 차이가 엄청 크다. 이 때문에 약한 알 이하해도 1kg, 5kg, 10kg 용량이 모

두 세분화돼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수의사가 원치 않아서 아니라 규정이 부족한 문제로 동물들은 최선의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반려동물용 의약품, 안전인가

반려동물을 위한 의약품과 의약품 개발에 동물 실험이 필요하다는 점도 윤리적 한계로 꼽힌다.

유성지 애니멀 프리 이니셔티브(AFI) 대표는 “바이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동물 실험 등 윤리에 대한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단순한 기술 발전보다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한 문제, 동물실험을 시작으로 바이오테크의 윤리에 대한 고민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을 위한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동물 의약품 개발에도 ‘장기모사체(오가노이드)’ 기술이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형준 그라스메디 연구소장은 “반려동물을 위한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

또 다른 동물을 희생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오가노이드와 같이 동물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동물들을 위한 맞춤형 연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판매 중인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한계로 지적됐다. 제품 승인에 특별한 규제가 없어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는 탓이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시행하는 반려동물 의약품의 제품 인증 절차는 제조사가 제출하는 ▲사용목적 ▲원료의약품 분량, 효능·효과 ▲규격 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해 7일 이내 이루어진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치약과 같은 경우 대부분 동물들이 삼키기 때문에, 계속 씹어다보면 누적 독성이 생길 수도 있다”며 “또 사람에게 안전하다고 알려진 물질도, 강아지나 고양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의약품 역시 최소한의 독성 평가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동물실험 등 윤리적 문제 부각 오가노이드 기술, 대안 부상 “최선의 치료 기회 놓칠 수 있어”

오가노이드 플랫폼을 활용한 독성 평가가 제품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유종만 대표는 “오가노이드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성이라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 “의약품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입증 결과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정책 아이디어 장이 되길”

### 축사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메트로미디어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를 주제로 메트로 경제가 주최하는 2024년 제약&바이오 포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령화와 저출생의 증가 1인 가구 증가 등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펫팬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급 성장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2022년 8조원에서 14.4% 성장한 2027년에는 15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 분야는 진료비 등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 기반도 마련돼 있습니다.

국회차원에서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을 접목한 반려동물 제품 개발과 의약품 개발, 반려동물의 난치병 등 의료계와 관련 업계의 기술 동향을 점검함으로써 벤처기업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반려양육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아 양질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포럼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산업발전에 큰 도움 기대”

### 축사

이재국

제약·바이오협회 상근부회장



2024 제약·바이오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 해주신 청중 여러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반려동물들을 위한 치료제,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각종 규제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흐름에 비춰볼 때, 앞으로는 또 하나의 가족으로 반려동물의 질병관리와 예방 등 포괄적인 헬스케어 솔루션과 서비스로까지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삶의 패턴이 변하면서 반려동물 산업은 앞으로도 더욱 커지고 다양해질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외를 망라하고 수많은 기업들이 반려동물 산업에 뛰어 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약·바이오협회 소속 기업들도 산업현장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연구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란 주제의 이번 포럼이 반려동물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 “동물의 삶, 함께 생각해봐야”

###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



반려라는 단어로 개회사를 시작할까 합니다.

‘반(伴)’이라는 단어는 짝을 뜻합니다. 사람 인(人)자와 절반의 반(半)자가 결합한 것입니다. 절반의 사람이 나머지 사람을 만나는 것, 이런 의미 같습니다. ‘려(侶)’도 사람 인(人)변에 같은 등뼈를 맞닿은 사람이라는 뜻 같습니다.

반려라는 단어 뒤에 사람 자(者)를 붙이면 ‘반려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려 동물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 대상은 우리와 함께하는 반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물 의약품을 비롯한 헬스케어 시장이 단순 사료나 난치치료 등으로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말만 하지 못할 뿐, 반려동물과의 감정 교류나 차고 넘치는 애교 등은 대단합니다. 강아지, 고양이는 우리의 형제, 자식과 같은 정도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반려동물 포럼을 이제서야 개최한 게 늦은감이 있지만, 이번 포럼을 통해 동물의 삶과 동물복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견주·묘주를 비롯한 반려인들에게 반려동물들의 건강을 점검해보는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